울산 신흥사 '침묵의 향기' 사진전 개막

도재수 사진작가 작품 50여 점 전시…10월 31일까지

8월 27일 개막식 100여 명 운집
종현 스님 "지친 심신에 위안을"
도재수 작가 "기다림 미학 표현"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8월 27일 신흥사 신성루(神成樓) 문화전시 공간에서 '제3회 침묵의 향기 연꽃사진 전시회'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은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도재수 사진작가의 연꽃 사진 50여점이 전시된다.

8월 27일 개막식에는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 염불암 성륜 스님, 낙서암 진원 스님, 신흥사 수인 스님, 도재수 작가, 박장영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 전태만 지회장, 손영배 자문위원, 강병우 울산사진 써클연합회장, 김성동 한국미술작가협회 前 부지회장, 신흥사 신도회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시회는 개회식, 내빈소개, 커팅식, 주지 종현 스님 인사, 도재수 사진작가 인사, 강진희 울산시북구의회 의장 축사, 시 퍼포먼스(이숙례, 김수향, 박덕희, 오승미), 기념 사진촬영, 사진작가 라운딩 순서로 진행됐다.

신흥사 종현 스님은 "연꽃은 청아한 모습과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연꽃 사진전에서 수려한 여름 정취를 느끼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큰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도재수 사진작가는 인사말에서 "연꽃을 보면 어머님의 품속에서 나던 그리움의 향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생각이 맑아지는 시간이 되고 자연의 겸손함과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침묵의 향기 사진전 개막식에 모인 사부대중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한편, 울산 신흥사는 통도사 말사로 635년 명랑 스님에 의해 조성됐다. 창건 당시엔 건흥사(建興寺)라 불렸다.

신라 678년(문무왕 16) 때는 승병(僧兵) 100여 명이 머물며 무술을 연마하며 성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는 신흥사 주지 지운 스님이 이끄는 승병 100여 명이 울산 근교에서 왜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왜적들에 의해 신흥사는 소실됐고 찬란했던 불적들은 사라졌다.

이후 1646년 재건됐다. 울산 신흥사 주불인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 제2021-56호다.

20년 봉사, 최흥철 대구경북BTN합창단장

9월 5일 봉사 시작으로 코로나 이후 활동 포부

2018년 11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대구경북 지역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음성공양팀인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단장 최흥철)'이 탄생한 자리였다. 활발한 활동을 다짐한 것도 잠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성공양 봉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이 다시 한 번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은 9월 5일 대구 교도소 추석맞이 봉사활동과 송편 전달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10월 경에는 동화사 · 파계사 · 한국불교대학 등과 함께하는 콘서트 연주회도 추진 중이다.


최흥철 합창단장.

2018년 11월 명칭 바꿔 재창단
코로나 팬데믹 딛고 활동 재개

최흥철 단장은 "지역과 불교계를 위해 정법포교 현장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BTN불교TV합창단'은 합창단이 없는 사찰에서 음성공양을 올리는 사실상 유일한 연합합창단이다. 35명의 회원들이 인연법에 따라 모여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음성공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들을 이끄는 최흥철 단장은 2007년부터 영산불교합창단을 창단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효성여대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졸업 후 음악학원을 운영했던 최 단장은 2007년 52세의 나이에 제2의 인생으로 불제자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서원했다. 학창시절부터 불교 동아리인 마야회 활동을 하는 돈독한 신심이 기반이 됐다. 이후 지인들과 함께 합창단을 구성해 대구교도소 등 소외된 곳과 합창단이 없는 사찰을 찾아다니며 매주 봉사를 해왔다.

최 단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심을 기반으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오고 있다"며 "2018년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제2의 창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앞으로도 더욱 더 큰 열정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10-8935-3677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공부 회향공덕, 장애 이웃에 자비 나눔으로"

진주불교회관 수계법회 봉행
31기 50명 졸업, 승보공양 · 나눔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은 8월 30일 진주불교회관 3층 대법당에서 가야불교대학 제31기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가야불교대학학장 보선 스님, 하동 무불관 철현 스님, 사천 평안사 지현 스님, 진주 무원정사 성각 스님, 고성 옥천사 청련암 원명 스님, 하동 북천사 재현 스님, 능륜 스님, 하동 연암난야 도현 스님, 하동 양천사 허경 스님 등과 진주불교회관 제31기 가야불교대학 도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계법회에서 홍수승 이사장은 "가야불교대학 제31기가 회향하는 날로 매우 뜻깊다"며 "법화경독송회 장학금 전달식으로 자비나눔 봉사정신과 실천행도 함께 이뤄져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8월 30일 진주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1기 수계법회서 참가자들이 발원하고 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법화경독송회가 독송 2500일을 기념해 장애인 백내장수술비 150만 원을 이금자 씨에게 전달했다. 또 진주 평안사 장학회에서 장애인으로 진주보건대학 복지과 재학 중인 단비 학생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술비와 장학금을 대신 전달받은 유홍근 장애인협회회장은 "진주불교회관에서 전달한 장학금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사회 일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뤄져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평안사 지현 스님은 "가야불교대학 시작 당시에는 차츰 인원이 줄어 걱정이 됐는데, 31기까지 회향하게 돼 기쁘다. 포교와 봉사활동을 하는 멋진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고성 옥천사 원명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잘 지키고 포교사도 되어 함께 불교발전에 나서자"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과학원 '생활포교' 승려연수교육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황룡원에서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승려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승려연수과정에서는 '코로나19 법회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주제로 새로운 포교방안과 법회운영 등 교육이 진행됐다.

8월 24일에는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의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방안' 강연과 함께 박종래 서울대 교수의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강연, 25일에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생활 속의 마음공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의 '뉴노멀 시대 법회 활용 방안' 강연이 진행됐다.



26일에는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의 '현대인을 위한 포교' 강연과 함께 승려연수교육은 마무리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1강부터 6강까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연계되는 것이 좋았다. 불교의 과학적 증명 사례를 들어 좋았다. 현대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의 모습에 감명 깊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마음과학원 측은 불교의 현대적 고민을 함께하고 나누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리산 천은사 · 사성암, 산사음악회 눈길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는 지난 8월 27일 경내 일주문 앞에서 '양수경과 함께하는 천은사 여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前 주지 종호 스님, 대진 스님을 비롯해 윤명수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장 등 500여 대중이 참여했다.

행사는 1980, 1990년대 국민요정으로 큰 인기를 누린 가수 양수경 씨와 바리톤 임준식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양수경 씨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사찰이 자신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며, "추후 템플스테이 등에 참여해 산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천은사는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매일 도량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갈히 하여, 항상 기도소리와 종소리로 온 도량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 사성암(주지 우석)도 '2022 사성암 여름밤 낙樂 극장'을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6회 茶詩樂의 밤 개최

8월 27일 정관암 경내서 열어
시낭송 · 노래공연 등 눈길

문수산 정관암(주지 대활)과 차시락의밤 운영위원회는 8월 27일 제6회 차(茶) · 시(詩) · 락(音樂)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정관암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제1부 전통차 시음회와 제2부 제6회 울산연주인상 시상식, 제3부 시낭송과 각종 공연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관암 대활 스님, 벽선암 혜진 스님, 현암사 현암 스님, 이순걸 울주군수, 김영철 울주군의회의장, 변희섭 서범수 국회의원, 서진길 연주인상 심사위원장,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장, 이희석 한국예총울산시연합회장, 정은영 울산문인협회장, 서순화 울산국악협회회장, 이국세 정관암 신도회장, 울주문화재단 관계자 및 신도회 군민 지역주민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운사, 10월 '최치원문화제' 추진한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가 '최치원문화제'를 추진한다. 고운사는 8월 17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제73차 교구종회를 갖고 '최치원문화제 축제안건'을 가결했다.

그동안 고운사는 산발적으로 최치원 관련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축제 안건을 통해 10월 14~16일 '최치원문화제'를 열며 최치원 학술대회, 청소년 문화예술제, 고운사 사찰음식체험 문화제, 최치원 특별 전시회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고운사는 같은 날 문화제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최치원문학관장인 정우 스님을 위촉했다. 또 공동단장으로 천명희 안동대 교수, 기획위원장으로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 운영위원장으로 박순 경북불교문화원장, 홍보위원장으로 임유주 안동MBC PD 등을 위촉했다.

한편, 고운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 성공리에 진행한 고운사 천년숲 맨발걷기를 '달빛 만행'으로 확대할 것도 발표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논산 쌍계사 석가여래삼불상 개금불사 성료

논산 쌍계사(주지 종봉)는 9월 4일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개금불사 및 복장불사 회향식을 개최했다. 보물 제1851호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불모 원오 스님이 1605년 신현 청허 신일 회춘 스님과 함께 봉안한 것으로 당시 임진왜란으로 피해가 큰 사찰의 전후복구와 위민을 위한 중창기여서 쌍계사에 봉안했다.

주지 종봉 스님은 "이번 개금불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역사적 상처와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사는 10시 점안의식을 시작으로 11시 법요식, 12시 헌공의식 등으로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천호월서희망재단 월서 대종사, 자비나눔

미얀마 양곤 사찰 학교 건립 및
공덕동 소외청소년 도와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천호 월서 대종사는 8월 18일 미얀마 양곤의 한 사찰에 교실 신축기금으로 3400만 원을 지원했다.

미얀마 양곤의 해당사찰은 군부 쿠데타 이후 학교 선생님들이 잡혀가고 학교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찰은 그동안 교실이 부족해 식당과 법당에서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 천호월서희망재단 기금으로 2층 건물의 교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해당사찰은 "전시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의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와 함께 월서 대종사는 9월 1일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월서 대종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움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성림당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재 봉행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8월 31일 경내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 대종사 25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관장 종상 스님, 대학원장 덕민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월산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다.

이날 〈월산 대선사 생애와 중도선 사상〉 학술지 편찬 공로로 보광 스님 등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